



“이탈리아의 슈발블랑”, 프란케티’

테누타 디 트리노로

Tenuta Di Trinoro

지역	이탈리아 > 토스카나		
포도품종	메를로 39% 까베르네 프랑 39% 까베르네 소비뇽 11% 쁘띠 베르도 11%		
알코올	14.5%	용량	750ml
등급	IGT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블랙 체리, 블랙 베리 등 풍부하고 집중도 있는 과일 풍미에 스파이시한 풍미가 더해져 있다. 풍성하지만 조화로운 와인으로써 단단하고 촘촘한 탄닌과 스파이시한 피니쉬가 인상적이다. 시음 적기는 2019년부터 2033년으로 훌륭한 숙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토스카나의 프리미엄 컬트 와인이다.		



제품설명



테누타 디 트리노로가 이탈리아의 슈발 블랑이라 불리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플래그십 아이콘 와인이다. 테누타 디 트리노로의 레이블은 이탈리아의 현대 예술가 안토니 살보 (Anthony Salvo)의 작품으로, 석양을 등지고 있는 프란케티의 자택을 그만의 꿈 같은 스타일의 이미지로 해석하여 그려냈다. 총 25 헥타르의 빈야드에서 재배한 포도를 구획별로 40 차례 이상 나누어 수확한 뒤, 야생 효모만으로 발효 과정을 거쳤다. 8개월간 새 프렌치 배리크 (barrique)에서 숙성시킨 뒤 시멘트 통에서 11개월을 추가 숙성한다. 테누타 디 트리노로는 보르도 블렌딩의 수퍼 투스칸 와인이라는 하나, 여느 수퍼 투스칸들처럼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 베이스가 아닌, 까베르네 프랑의 비율을 대폭 늘림으로써, 전세계의 와인 애호가들이 까베르네 프랑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끔 하였다. 2014년은 4,200병만이 생산되었고 한국에서는 연간 60병만 만날 수 있는 최상의 프리미엄 와인이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7점 제임스 서클링 2024 Top 100 이탈리아인 와인 리스트_88위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5점
2021빈티지詹시스 로빈슨 Jancis Robinson 17+점

와이너리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1999년에 올해의 와인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던 안드레아 프란케티는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괴짜 양조가로 불리운다. 프란케티는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펠리컨이 진주를 물고 왕관 위에 앉아 있는 가문의 문장은 현재 비니 프란케티의 로고이기도 하다. 프란케티는 영화배우 시절을 지낸 후, 1980년대부터 미국 뉴욕에서 와인 유통업과 레스토랑을 경영하며 외식업계에 발을 들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연히 토스카나 지방을 방문하던 중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오리카 밸리 지역에 매료되었고 그 곳에서의 와인 생산을 결심하게 된다. 프란케티는 자신만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양조 기법을 통해 1992년 “테누타 디 트리노로”를 탄생시켰고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이탈리아의 슈발 블랑이라 일컬어지는 등 전세계 수많은 와인 애호가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게 된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